불교, AI를 품다

불교AI 전법 포교, 나아갈 방향은

AI시대, 불교 시작점 되돌아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프랑스의 국제 보도전문채널 프랑스24(France 24)의 영문 유튜브 채널인 'France 24 English'에 흥미로운 뉴스 영상이 올라왔다. 뉴스의 내용은 이러하다.

진행자는 온라인에서 웰니스(Wellness),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웰빙(Well-being)'이라 불리는 가르침을 전파하며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은 어떤 불교 승려 인플루언서를 소개한다. 그러다가 돌연 미묘한 웃음과 함께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부연한다. 이어서 보도 기자는 양문(Yang Mun)이라는 인플루언서 승려에 관해 이야기한다. "부드러운 목소리, 잔잔한 음악, 그리고 영상마다 담긴 영적인 가르침으로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양문(Yang Mun) 계정을 보면, 승려 양문은 자신이 치유 가이드(Healing Guide)이며 현대인의 삶에서 심신을 평안하게 치유하는 고대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소개한다. 그의 계정에는 거의 매일 영상이 올라오며, 영상의 길이는 1분 30초 정도로 매우 짧다.

사이트에서는 '30일에 걸친 치유의 여정(30-Day Healing journey)'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도 판매하고 있다. 구매하면 그 즉시 △주간 비디오 레슨 △매일의 가이드 △일일 호흡법 안내 △사고방식 전환 △감정 해소 연습 △가이드 명상 △마음을 진정시키는 미니 레시피 북 △30일 치유 저널 등 콘텐츠가 잔뜩 제공된다. 하루에 단 몇 분만 소요되므로 바쁜 현대인이라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명상이나 호흡법, 웰니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설명돼 있다고 안내한다.

이 놀라운 경험은 고작 49.99달러라는 비용만 내면 손에 들어온다. 원래 99달러지만 현재 할인가로 판매 중인데, 동양의 고귀한 지혜에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뉴스로 돌아가자. 진행자가 지적했던 함정이란 무엇일까? 뉴스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AI 인플루언서: 웰니스 콘텐츠를 판매하는 이 화제의 승려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AI influencers: this viral monk selling wellness content isn't real)." 기자는 인플루언서 고승 양문의 정체를 공개한다. 뉴스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는 '가짜'라는 것이다. 영상은 매우 사실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각각의 영상 화면을 체크해 보니, 구글의 AI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삽입되는 워터마크인 'Synth ID'가 검출되었다.

이외에도 영상마다 얼굴 생김새가 조금씩 바뀌면서 외모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피부 질감이 어색해서 마치 밀랍 같은 AI 이미지 특유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 영상 속 책의 중국어 텍스트가 엉터리라는 점, 그리고 영국 억양을 사용하고 매우 서구화된 현대적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을 기자는 지적한다.

사실 양문의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AI 생성물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 특히 전통적인 불교도라면 쉽게 알 수 있다. 어느 영상에서는 동남아시아 불교권을 연상하게 하는 형태의 승복을 걸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영상에서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중국 승복을 입고 있다. 승복의 색상도 중구난방이다. 심지어 어느 영상에서는 승복이 아닌 속복(俗服), 일종의 중국 전통 옷을 입고 있는데, 실제 수계한 동아시아권의 승려가 이런 식으로 복장을 바꾸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 뉴스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유로비전 뉴스(Eurovision News)의 '양문: 웰니스 시장에서 수백만 명을 사로잡은 구글 AI 가상 인물(Yang Mun: The Google AI-generated persona reaching millions in the wellness market)'이라는 기사에서는, 양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추적한다.

서구 언론 조명된 승려 '양문'
AI로 만들어낸 가짜 승려였다
'양문' AI 스캠, 현시대 業 투영

AI 생성물이든 팔만대장경이든
인간을 부처로 인도해야 '가치'
그렇지 않다면 환영에 불과해

이 기사에 따르면, AI 인플루언서 고승 양문을 만들어낸 것은 샬레브 하니(Shalev Hani)라는 인물로, 그는 자신을 디지털 크리에이터이자 AI 스토리텔러라고 소개하며, 샬레브 마케팅(Shalev. H. Marketing)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AI 인플루언서 제작으로 짧은 시간에 수억원을 번 혁신적인 1인 창업가로 소개된다. 국내의 인터넷 미디어 몇 군데에도 자세한 내용은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기사'로 샬레브 하니의 사례가 몇 군데 소개돼 있다.

AI 스캠(scam)은 지금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됐기에, 대대적인 규제와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불교계도 사회 전반의 공감대와 신속하게 발을 맞추되,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AI 스캠 승려 양문의 사례는 시대에 따라 기술의 수준은 달라지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중생의 번뇌와 그로 인한 업의 생성과 그 결과에 따른 세계와 경험의 구성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승복을 위조해서 착용하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심리적 약점을 자극하여 이익을 얻는 일들은 AI는 아닐지언정 '허위'의 스캠이었다. 기술을 사용하는 그것은 중생이고, 중생을 움직이는 것은 동기이다. 동기가 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동기가 선하면 그것은 행복으로 이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의 시작과 끝은 발심(發心)에 있다고 역설한다. 올바른 동기는 정토(淨土)를 만들지만, 악한 동기는 악도(惡道)를 구현한다. 그렇다면 불교는 동기가 순식간에 현실에 실체화될 수 있는 AI시대에 더욱더 발심(發心)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애당초 승려 인플루언서로 속이는 AI 스캠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기존에 이미 고도로 상업화되고 인스턴트화된 불교·명상 산업이 사회에서 성행하고 있기에, 제작자는 이것이 돈이 되겠다 싶어 모방하여 AI 스캠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지적해야 하는 것은, 깊이와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상업화와 중생의 탐욕에 사로잡힌 불교계·명상계 일각의 행태이지, AI 기술 자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반성이 필요한 것은 어느 지점이겠는가?

AI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전문성'의 독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필자도 티베트어 번역과 통역을 10여 년간 해온 입장에서, 점점 빠르게 자신이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전문적인 기술의 영역이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 처음 출가할 때는 불교를 수행하여 성인들처럼 해탈하고 싶었던 것이지, 불교의 언어와 지식을 닦느라 세월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AI의 발전은 더욱더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기계로 인해 육체의 가치가 이미 대체당했고, 장차 AI로 인해 정신의 가치마저 대체당한다면, 이제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쾌락을 추구할 뿐인 생체 기계인가? 아니면 신체와 정신마저 넘어선 곳에서 진정한 '참 나'를 찾을 것인가? 여기야말로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아야 하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끝이 아닐까?

그리고 장차 AI가 부처의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인가? 극락세계와 천상에는 울리는 주체가 없는데도 스스로 소리를 내며 사성제(四聖諦)나 팔정도(八正道) 등의 가르침을 설하는 북과 악기, 보배 나무들이 있다고 한다. 이것들은 그곳에 머무는 중생들의 청정한 업과 불보살의 발원 등으로 현현한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 빅데이터의 축적이 마침내 인간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AI로 나타나는 모습은 중생의 업이 기세간(器世間)과 유정세간(有情世間)으로 현현하는 과정을 연상시킨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 모든 언어·경험·현현이 궁극적으로 실유(實有)가 아니며, 아무리 아름답고 좋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야 하는 뗏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야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AI 생성물이든 팔만대장경이든 모든 경험은 인간을 부처라는 위대한 완성으로 인도할 때 가치를 지닌다. 그렇게 쓰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교하고 놀라운 지식, 예술, 기술, 미디어, 그리고 영적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환영, 신기루, 물거품이고 스캠(scam)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홍 스님
BTN 무상사 선원 참선법회 지도법사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금 룡 사
주 지 범일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길 95-13
전화 061)724-5988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화 암 사
주 지 대 현
사부대중 일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길 100
전화 033-633-7463
홈페이지 https://hwaamsa.com

대한불교조계종
1300년 역사가 흐르는
강화도 마니산 정 수 사
주 지 성 원
사부대중 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1258번길 142
☎ 032-937-7601, 010-5750-3612

불교문화유산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불교문화유산 전문 연구기관으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드높이는 한편, 보존·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 장 혜 공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임직원 일동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SK허브 102동 104호
전화 02)735-9944, 031)513-1903
팩스 02)735-9974